

보도시점 2025. 6. 1.(일) 12:00
(2025. 6. 2.(월) 조간)

배포 2025. 5. 30.(금) 17:00

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(Global CBPR) 인증 개시

- 6월 2일부터 시행...우리 기업, 아태 지역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날개

개인정보보호위원회(위원장 고학수)와 한국인터넷진흥원(원장 이상중)은 2025년 6월 2일부터 ‘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(Global Cross-Border Privacy Rules, Global CBPR)’ 인증(이하 ‘글로벌 인증’)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※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총괄 부처로서 국내에서 글로벌 인증(Global CBPR) 관련 제반 정책을 수립하고, 한국인터넷진흥원은 ‘인증기관’으로서 인증심사 업무 수행

글로벌 인증(Global CBPR)은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국경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,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춘 기업은 인증을 받을 수 있다.

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외 사업 시 대외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. 아울러, 글로벌 인증(Global CBPR)을 국외이전 수단으로 채택한 국가(일본, 싱가포르 등)로부터 원활하게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.

해당 인증(CBPR)은 지난 2011년 아시아·태평양 지역 9개 국가를 중심으로 상호 간 인증(APEC CBPR)으로 시작하였으며, 이후 영향력을 전 세계로 넓히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, 일본 등의 주도로 2022년 글로벌 협의체가 출범하였다. 3년 간의 논의를 거친 결과 글로벌 인증(Global CBPR)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. 현재 영국, 두바이 등 4개 지역이 추가로 참여하고 있으며,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기존의 아시아·태평양 지역 인증(APEC CBPR)을 받은 국내 12개 기업은 6월 2일부터 자동으로 글로벌 인증(Global CBPR)을 부여받게 된다. 그 외 신규로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서 심사방법 및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6월 중 공지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최윤정 (02-2100-2481)
		담당자	사무관	박선엽 (02-2100-2483)
			사무관	이소민 (02-2100-2482)
<공동>	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협력팀	책임자	팀 장	박지애 (061-820-2616)
		담당자	선 임	채수연 (061-820-1439)



□ 글로벌 CBPR (Cross Border Privacy Rules)

- 2011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회원국이 APEC 프라이버시 9원칙을 근거로 공동 개발한 개인정보보호 인증에서 출발
- 한국·미국·일본·싱가포르를 중심으로 글로벌 CBPR 포럼이 출범 ('22.4.)하여 CBPR의 APEC 역외 확대 추진 중



○ CBPR의 주요 특징

- (비대체성) 각국의 법·제도를 대체하지 않음
- (자발성)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함
- (유연성) 각국의 법·제도 환경에 맞게 제도 운영 가능
- (활용 중심)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 등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체계